

##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장래



홍 성 민  
중동경제연구소장

### 중동질서 재편의 전초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월 1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라크가 그 동안 유엔의 결의를 무시하고 핵 무기 획득을 추구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시하고 유엔이 이라크의 무기사찰단 재입국을 받아들일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를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제거하기 위한 유엔 결의를 요구하면서, 만약 이라크가 이를 거부해 유엔의 행동이 실패로 돌아가면 "미국의 행동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암시는 일종의 이라크에 대한 간접적인 선전포고이며, 최후 통첩인 셈이다. 다시 말하면 부시 대통령의 결단이 이제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지난해 9월 11일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테러사태가 발생하였다. 부시 미 대통령은 이틀후인 9월 13일 곧바로 오사마 빈 라덴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10월 7일 아프간 공격을 시작하여, 12월 11일 알-카에다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서 아프간 전쟁은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부시의 목표는 아프간이 아니라 이라크였기 때문에 승리는 충족되지 못했다. 빈 라덴과 이라크와의 연계를 찾아내어 이라크 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미국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목표는 테러와

의 전쟁이라기 보다는 이라크 공격이라는 점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금년 들어 부시 미행정부는 아예 이라크공격에 테러전쟁의 목표를 맞추기 시작했다. 부시는 1월 29일 국정연설에서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 (Axis of Devil)으로 지목함으로써 전세계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에 덧붙여 5월 23일에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제거를 천명하고, CIA 요원들에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렸다. 사실 이 시기에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유력한 설이 제기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부시 자신으로서는 가급적 조용히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긴 듯하다.

이러한 전략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자 미행정부는 이라크 무력 침공의 계획을 세웠다. 지난 9월 6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이 최근 1만3,000명의 병력과 수많은 컴퓨터, 2억5,0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3주에 걸쳐 실시한 대 이라크전 예행 연습에서 공식 발표와는 달리 참패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미국으로서는 무력사용을 통한 이라크 장악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빈 라덴과의 테러 연루도 증거 확보가 어렵고, 내부적으로 사담 후세인을 전복시키기도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아프간 공격으로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중동 질서 재편을 위한 새로운 전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이라크 공격으로 중동질서 재편의 전초전을 알리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목표는 사담 후세인의 제거가 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라크 공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계에 이른 것이다. 9월 12일 UN에서의 부시의 연설은 희석돼 가는 대의명분을 9·11 테러 1주년에 맞춰서 미국민의 애국주의에 호소하지는 의도일 것이다.

## 미국의 석유이권 장악이 목표

"왜? 하필이면 중동의 이라크 아니 사담 후세인이 부시의 집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그 답은 분명하다. 이 점은 석유협회보 1·2월호에 본인이 기고한 "미국의 관심은 중동의 석유"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역시 중동의 석유이권 장악이 미국의 목표이다. 미행정부의 이라크 공격의도를 대별하면, 첫째는 중동에서의 미국의 석유이권 장악이요, 둘째는 불황에 빠진 미군수산업의 보호에 있다.

이러한 의도는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유독 영국만이 앞장서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간단해진다. 독일이 반대하고, 프랑스가 주춤거리는 것을 보면 그 답은 더욱 더 명료해진다. 1901년 영국 주도로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중동의 석유산업은 1930년대 미국의 자본 참여가 시작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력 증대로 미국의 석유자본이 중동의 석유를 지배하게 되었다. 1960년 OPEC의 창설과 1973년 '석유 무기화'로 힘을 얻은 중동산 유국들은 자국의 이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미국에 우호적이다. 이란도 팔레비 정권시절까지는 미국에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유독 이라크만이 미국의 석유자원 지배에 걸림돌이 돼 왔던 것이다. 이라크 석유 매장량은 1120억 배럴로 2650억 배럴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다.

미국의 이권개입이 가장 어려운 중동의 산유국은 현재 '악의 축' 내지는 'UN의 제재조치'에 묶여있는 이라크, 이란, 리비아 등 OPEC 내 강경파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라크의 후세인이 제거된다면, 그 불씨는 곧바로 이란이나 리비아로 옮겨 붙을 것이다.

이라크에서 후세인의 존재가치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은 있어서도 또 없어서도 안되는 필요악의 인물로 남는다.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 없다면 누가 이 복잡한 이라크를 지도할 것인가? 그렇다고 후세인의 존재를 인정하면 이라크는 아랍국가들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과의 대결을 계속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1991년 걸프전쟁 때 아버지 부시가 후세인 정권 궤멸 직전까지 갔다가 마지막 1마일 (Last mile)을 남기고 전쟁을 끝내는 바람에 후세인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줬다고 애석해 한다. 아들 부시의 사적인 감정도 이번 이라크 공격을 강행하려는 의지로 표출된다. 그러나 과제는 남는다. 친미적인 아랍국가들 뿐만 아니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맹국들은 UN의 결의없는 이라크 공격에는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와 프랑스의 반대를 지지로 돌리고,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부시에게 남겨진 마지막 과제일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중간선거는 공격시점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 쿠르드족의 등장과 지역주의 부활

이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 형태야 어떻든 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축출이라는 쪽으로 목표가 설정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동지역에서의 석유주권을 벗어난 새로운 양상의 패권다툼이 고개를 들 것이다. 이 경우 러시아는 잠자고 있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도 평화정착을 모색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 아사직전의 이라크는 곧바로 아랍 형제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또 이 기회에 (아프가니스탄의 혼란 상황을 틈타서) 인도는 카시미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터키는 바스당 체제가 무너질 경우 직면하게 될 쿠르드족 반란의 파장에 직면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을 걱정한다. 따라서 사우디는 이라크 내에서의 미국의 공격작전에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점이 쿠르드(Kurds) 문제이다. 세계 최대의 유랑민족인 쿠르드족은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때는 혁명을 도와 독립을 원했지만, 혁명 이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라크 인구의 약 15~20%에 달하는 쿠르드족들은 외견상으로는 반이라크적인 행동을 취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게 될 경우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독립쟁취를 위해서 현재 터키와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쿠르드족들이 가세하게 되면, 자연히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리든지 아니면 제2의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터키-쿠르드 문제를 잉태시킬 가능성도 있다.

가장 명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 점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중동에서 반미감정을 고조시켜 '아랍권의 분열이나 통합'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Islam)은 매우 중요한 매개변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중동의 지역주의(regionalism)는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을 위시한 선진

국들의 세계주의(globalism)에 반기를 들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그리 쉽게 감행되지 못하는 배경도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새로운 중동의 불씨에 성냥불을 그어 대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 사담 후세인 정권의 장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사담 후세인은 미국의 친구였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실권을 잡은 서구의 공적인 이란의 호메이니와 싸워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라크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덕분에 1988년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무렵 이라크는 세계 4위의 군사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란-이라크 전후 1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 문제와 전비 반환을 요구하는 쿠웨이트, 즉 서방 국가의 협력자인 쿠웨이트를 1990년 무력으로 장악하였다. 그 결과 걸프전이 발발하였고, 이라크와 서구세계는 견원지간의 원수가 된 것이다. 더욱이 재정수입이 부족한 이라크는 OPEC내에서도 유가인상을 부추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의 군사력은 걸프전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이라크의 군사력은 매우 낙후되고 병력수도 절반이하로 줄어든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라크는 대략 40여만명의 정규군과 60만명의 예비군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장비가 낙후됐고 23개 사단중 기계화 사단도 6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지 생화학 무기와 이동식 스커드 미사일만이 미군의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 대신 이라크의 핵심 시설을 선제공격, 군사기능을 마비시키는 ‘인사이드 아웃 (inside-out)’ 작전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동에서의 미국의 목적, 즉 석유이익의 확보는 분명하다. 미국의 행동은 여타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이라크는 결코 경쟁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자칫하면 중동분쟁에 새로운 불씨를 지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려는 점은 이라크에 ‘친미적인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보인다. 그렇다고 사담 후세인이 순순히 손을 들고나올 리도 만무하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의 핵심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전복임이 분명하다. 미국의 공격이 시작되면 목표는 반드시 이점에 맞춰질 것이다.

문제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킨 후, 과연 미국이 이라크에 ‘새로운 민주국가’ 혹은 ‘친미적인 이라크 정권’을 어떻게 수립하느냐가 더 큰 과제로 남는다. 만일 미국이 공격하고, 그 공격이 성공하여 사담 후세인을 무리없이 제거한다면 손치더라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이라크를 누구에게 맡겨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사담 후세인이 없는 이라크는 또다시 민족 분쟁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 북부의 쿠르드족이 연방정부 구성하자고 나올 것이며, 60%가 넘는 쉬아파를 현재 30%정도의 순니파가 정권을 지배하고 있기에 주도권 다툼을 위한 종파간 분쟁도 격화될 것이다. 더 더욱 20년이상 철권정치를 해왔기에 이라크를 통치할 수 있는 반후세인 지도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아무튼 후세인 없는 이라크는 보다 복잡한 내정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짙다. ☹